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89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7p(-p, WoW), 중고선가 지수는 88p(-1p, WoW)를 기록함. 신조선가 지수는 2018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됨. 국내 조선사의 수주 계약은 없었음. 현재까지 전세계 누적 발주량은 246척으로 전년동기대비 -53% 하락했다고 보도됨. (Clarksons)

US-China detente offers hope for VLCCs and gas carriers

미국-중국 간 긴장 완화가 향후 탱커 및 가스선 시황 개선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중국은 당초 합의에서 향후 2년간 520억달러 규모의 추가 에너지원 수입을 약속했으나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6억달러 규모의 수입에 그쳤다고 보도됨.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 석유 및 가스 물동량 개선이 기대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Capesize market shows signs of slowing after record-breaking week

Capesize 벌크선 운임이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두배로 급등했다고 보도됨. 주요 5개 노선의 금요일 spot 운임은 하루 25,511달러로 월요일 대비 +92% 상승하며 BEP(손익분기점)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보도됨. BDI지수는 한 주 동안 +60 상승한 1,555p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Petrobras targets offshore asset divestments after recent mature fields sale

브라질 국영 석유업체 Petrobras가 offshore 자산 감축(divestment)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Ceara 지역의 Espada, Curima, Xareu, Atum 등 4개 field에 대한 지분을 전량 매각 한다고 보도됨. 해당 패키지에는 9개의 플랫폼이 포함되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됨. (Upstream)

'컨'선 시장 최악 지점 통과

컨테이너선 시장이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고 보도됨.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서서히 나타날 전망이다, 물동량이 언제쯤 회복될지는 오리무중으로 4월 중 원양항로 물동량은 전년대비 -30 ~ -10% 줄어들었으며, 5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US oil rigs fall by 10

지난 주 미국내 가동 중인 석유 시추 장비 수가 10기 줄어들면서 총 189기로 집계되었다고 보도됨. 가스 리그(rig)는 3기 줄어들면서 총 75기로 집계되었다고 보도됨. 지난해 평균 oil rig는 약 600기, Gas rig는 약 102기였다고 보도됨. Permian 지역 리그 수가 전년대비 307기나 줄어들면서 현재 132기만 가동중이라고 보도됨. (Upstream)